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 회의명 :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일 시 : 2023. 1. 27.(금) 16:00
- 장 소 : 정책세미나실
- 참석자 : 이돈영(위원장), 손득권(부위원장), 최준식(위원), 양기열(위원), 김예찬(위원), 이수희(위원)
- 배석자 : 이동식(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영창(구의원), 박성도(구의원), 박세은(구의원), 신봉규(구의원), 신현일(구의원), 박남주(운영위원회 전문위원)
- 안 건 : 위원장 · 부위원장 선출
2023년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

○ △△△ 간사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간사, 의정팀장 △△△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핸드폰을 잠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위원회 및 참석위원 소개,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공무국외 출장 심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시는 민간위원 여섯 분과 구의원 한 분을 포함하여 모두 일곱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 위원은 공개 모집되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럼 오늘 은평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연장자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당초 △△△ 선생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일정 때문에 좀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은평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에 따라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장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감사

지금 연장자께서 맡아주시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장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겠습니다.

수고스러우시지만 △△△ 위원님과 △△△위원님께서 자리를 좀 바꿔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 바꿔 착석)

△△△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위원장

오늘 이렇게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러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러 오셨는데 뵈 분도 있고, 안 뵈 분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열심히 공정한 심사를 해서 좋은 국외출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도 열심히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감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께위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위원님 손 드셨습니까 ?

○ △△△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 △△△ 감사

△△△위원님의 부위원장 자원에 다들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 △△△ 감사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했고요. 이제 관계자분들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참석)

다음은 오늘 심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 운영전문위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앞으로 진행할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 위원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국외 출장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께서 이번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간사

이번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 출장계획 보고)

이상으로 공무국외 출장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 출장심사 의견서에 심사기준을 참고하셔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제가 좀 내용을 파일로 받고 놀란 점이 계획서가 너무 부실하다.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서 지방의회 해외연수 관련해서 여러번 분석을 하곤 했는데 예천군의회 사건 많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언론에서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너무 많이 때리니까 요새 지방의회에서 계획서를 이렇게 안 씁니다.

관악구의회에서는 도시와 도시를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대중교통을 이동하겠다. 트램을 타겠다. 대중교통시스템을 배우겠다 그런 부분을 쓰고,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확정되지 않아도 누구를 만나려고 생각 중이고 어느 시설에서 무얼 배우겠다고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놓았고 성북구의회도 계획서 같으면 이게 지금 100% 섭외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섭외가 안 된 경우가 있으면 1안 2안 나누어서 섭외가 안 될 경우에 어떤 누구를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데 은평은 너무 소략한 것 같습니다.

일정에 대한 계획을 소략해서 방문목적이나 이런 것도 잘 드러나지 않고 방문 곳들이 호주하고 뉴질랜드인데 사실 갔다온 지방의회가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분석을 했을 때 오십 몇개가 1년에 가고 그랬는데 똑같이 블루마운틴, 올림픽파크 등등 다 가는 곳인데 은평구의회가 도대체 지방의회가 가는 코스를 가서 무얼 배울것이나 무얼하려고 하는가 너무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 위원장

△△△위원님

○ △△△ 위원

이번에 공무국외 출장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하게 된 △△△위원입니다.

심의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해서 조례 규칙도 본인이 직접 제정을 했었고 이번에 심사를 참여하면서 개인 소신에 의해서 국외연수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외시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참석

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심의에 참석할 수 있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심의를 자처했는데 감사하게도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참석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목적이 불분명하다 혹은 세부내역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들은 사무처나 운영위에서 보완하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동감의 표시를 하고 더불어서 사실 항상 다른 의회도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의정활동의 주체는 의원들이고 의원들이 가서 비교시찰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의아한 부분이 과거에 한번 이곳을 다녀왔던 일정이 있어서 저는 오랜 기간동안 국외 관련해서 시찰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과거와 다르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짜여 있어요. 의아한 점이 과거 일정보다 두배 이상의 기관방문이 이어져 있어서 혹여나 이런 점에 대해서 너무 충분하게 볼 시간이 있는 것인지 또 갔다 와서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기관이 너무 많으면 부담이 심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와 의원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도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국립공원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는데 공원 여러 군데를 시찰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남을 것 같다. 특히 호주하면 자연 생태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산을 끼고 있는 은평이 사실 서울답지 않고 그게 칭찬일 수 있고 특별하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북한산과 불광천을 갖고 있는 은평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디테일한 문제까지 일정에 이동수단이나 누구를 구체적으로 만나야 한다 하는 것까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인쇄물에는 안 나왔는데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간사님한테 질문드리면 될 것 같고 우리 의원님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분?

○ △△△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디테일한 부분은 일단 시기를 시작한 것이 업체를 3군데 정도 견적서를 받아보고 공항료 유류비가 엄청 많이 올라서 한정되어 있는 지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쪽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며칠을 어디 어디를 방문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의회 운영팀에서 좋은 데, 가고 싶은 곳이나 그런 곳을 섭외를 했고 거기에서 이동경로라든지 앞으로 오늘 이렇게 국외공무출장 심의가 끝나면 추후적으로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다 국립공원같은 경우는 은평구가 산을 끼고 있잖아요. 북한산을 끼고 있는데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를 가보신 분도 계실 것

이고 안가신 분도 계신데 사람마다 시각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가서 횡단보도 크기가 틀리고 높이, 간격이 틀리듯이 하나하나 따져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 위원님

○ △△△ 위원

국외 출장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갔다 와서 보고서가 없어요. 이때까지 전 장창익 의장님만 써냈습니다.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출장에서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방문지 의견조율은 어떻게 됐는지 됐으면 어떤 형태로 조율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 △△△ 의원

공무국외 출장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강화된 규칙을 바탕으로 저희가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추후에 언론사 라던지 그쪽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운영위원장으로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 위원장

공무출장지 의견조율은 어떻게 했는지?

○ △△△ 의원

섭외 부분요?

그것은 전담하는 여행사 쪽에서 호주에서도 시드니 쪽에 한국 의원님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보람된 시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 의원

△△△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 보충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가 없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지금 전부 다 올라와 있고, 8대 의회에서 한번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온 다음에도 그렇게 결과물이 정리돼서 나오지 몰랐습니다.

뭐냐면 되게 많은 페이지를 제출했는데 그냥 한 두 페이지로 제 것은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각각의 의원님들이 공무국외 출장을 갔다 오시면 열심히 작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9대 의원님들 아까처럼 우리 존경하는 △△△ 위원장님께서도 보고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세부적으로 좀 계획을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분의 A라는 의원님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모든 의원님이 17분이 가시는데 17분이 똑같은 내용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파트나 분야를 나눠서 집중적으로 작성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별화된 공무국외 결과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사실은 얘기 중에 있습니다.

얘기 중에 있고 기관 부문별 의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번 다녀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심사위원회 개최를 하고 예를 들어 티켓팅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면서 사실 부킹이 들어가면 늦죠.

불가능합니다.

이게 일정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지에서 도와주는 가이드 회사죠.

회사를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획서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완벽한 계획서는 사실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뽐 부분 좀 빼야 될 것이고 집어넣어야 될 부분은 더 집어넣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근데 공무국외 출장의 본질에 맞춘 계획을 더 보강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우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발언한 김에 더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하면 은평구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와 본 적이 있으신 분이 7대 의회에서 갔다 오셨으니까 7대 의회를 경험하시는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의원 신분으로서 공무국외 출장 명분 하에 출장을 수행하는 의원님들은 전부 다 처음이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50개 자치구가 다녀왔는데 은평이 왜 또 가야 됩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자치구가 갔다 왔으니까 B자치구는 가면 안 된다는 것 보다는 A자치구에서 다녀와서 무슨 사업을 행정에 적용을 시켰더니 좋았으니까 B자치구에서 우리 자치구에 맞는지 또 한 번 더 확인차에도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출장의 결과물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가서 저희들이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안타까운 얘기를 하셨는데 예천군 나쁜 면인 것 같아요.

가이드 폭행 사건이었는데 저희 의원님들 중 절대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공무국외 출장 관련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주민분들, 시민분들, 우리 구민분들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확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은평에서 더 모범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더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 위원

저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부분 동의를 하고 또 부분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계획서가 사실 딱 보더라도 세부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던 분의 입장에서는 비용이랑 아직 아무것도 확정돼 있지 않은 심의 단계에서 세부 일정을 확정해서 전달해 주는 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직 갈지, 안 갈지도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앞만 보는 상태에서 뭔가 이동수단부터 혹은 인원까지 픽스를 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이지만 통과가 된다면 저는 사후에라도 심의위원들께 어느 정도의 픽스시킬 수 있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후 보고를 통해서 납득을 시켜야 된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 위원님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 △△△ 위원

저도 공무국외 여행, 굉장히 사실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의 이제 부심이 있다, 저는 사실 그렇다고 이거 폐지해라,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는 완전 동의하지 않고 어쨌든 이게 굉장히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잘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성북구의회나 관악구의회 같은 경우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걸 되게 잘 세워 가지고, 아무튼 이런 심의 자료들도 사실은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좀 이런 계획으로 이런 정

도의 어떤 일정으로 회의를 했던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호주 얘기하지만 라이드시에 이렇게 저도 찾아보니까 한국인 의원들 계시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이런 일정들이.

우리는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 사람들의 입장은.

그래서 계획서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아, 이분들이 여기에 왜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방문기관 타당성, 이런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정보들이 어쨌든 여기에 들어 있어야 최소한의 어떤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어려움이 저도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한달 후에 받은, 아직 확정도 안 되고 여기서 통과가 돼야 이것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목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것들이 좀 뒤늦게 되더라도 우리가 가서 적어도 누구를 만나겠다, 에 대해서 어떤 직위의 사람을 만나도록 예정, 이런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이를테면 어떤 곳들 같은 경우는 막상 갔더니 섭외가 불발이 나가지고 못 만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사실 그건 웃기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안까지 정도는 두고 있는 게 맞지 않나 만약에 여기를 못 가게 되면 여기를 간다, 이런 것들 정도는 좀 정리를 해서 추후에라도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의원 말씀하세요.

○ △△△ 의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한번 내면 우리 △△△ 위원장님이랑 우리 △△△ 위원님 맞죠?

○ △△△ 위원

네.

○ △△△ 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심의위원님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저희 정보가 직접 전달되는 내용이 없다는 부분, 저희부터 은평에서부터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 많으시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을 좀 공감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고 받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의위원회가 통과됐으면 이제 세부적인 계획이 더 정리가 되는 부분, 다시 우리 심의위원님들한테 공유해 드리는 것, 그리고 결과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 그런 것 좀 제도적인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제안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직위나 예정이나 그런 것, 이제 불발 같은 것, 저도 사실은 8대 때 가보니까 저희가 만나려고 했던 분이 시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부시장님이 대신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발됐을 때 2안, 3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돼야지만이 그런 내용을 담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 △△△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너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자세한 계획을 짜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결의를 받아야 이제 진행을 한다, 그것은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 자리는 계획서를 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의결을 받는 자리니까 충분히 그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출장 일정만 봐도 사실 너무나 교통수단이나 이런 세세한 부분은 변동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계획서만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드니 같은 경우는 블루마운틴이 화재가 크게 났었기 때문에 그게 복구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러 간다.

당연히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그런 적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사업소 발전소의 경우는 이게 화산 지대이기 때문에 지열 발전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은평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가 사실 의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어떤 통찰을 얻어올 수 있다면 당연히 보람되는 계획이겠죠.

그러면 그러한 점을 충분히 좀 어필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왜 뉴질랜드와 시드니를 가는가에 대한 이해조차 사실은 외부 자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가서 배울 게 굉장히 많은 나라니까 당연히 가서서 잘 해오시겠지만, 심사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경비 자체가 과다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타이트해서 지금 이걸로 이렇게 생활이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경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안이 너무 부실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추후 보완해서 올리겠다라는 말씀은 사실 본 심사위원회에 적합하지 않은 말이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계획을 여기 수립하시는 데 참여하신 의원님이나 관계자 분이 계신다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장

잠깐만요. △△△ 위원님 말씀 있습니다.

○ △△△ 의원

혹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장 수로만 심의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정회를 하고 조금 서면이나 자료를 준비한 후에 심의를 다시 재개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 운영전문위원

저희가 준비하면서 사실 양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했는데요.

저희가 각 방문 기관별로 어떤 것을 보고 올지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바로 프린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잠시 정리하고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 △△△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국외 출장 방문 장소, 일자별 안내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가져왔습니다.

검토 시간을 갖다가 잠깐 드릴게요.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대강 검토 끝나셨죠?

사실 그렇습니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더 디테일하게 이걸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외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이제 좀 부정적인 면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구의원으로서 외국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고 배울 점, 사실은 우리나라도 9위예요. 세계 경제대국 9위인데 가서 배울 점이 얼마나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비교 검토를 하겠죠.

비교 검토가 되는데, 하는 방법은 조금 말이 좀 틀린 것 같고, 이제는 우리가 비교 검토를 해서 어느 게 더 우선 순위를 잡아야 되느냐 어느 것이 우리보다 좀 난가를 비교 검토하고 보시는 것인데, 실제로 다 문퐁그러서 그게 외유성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서 공부하시러 가는 것이냐 그게 우리 심의위원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새로 가져온 메모지를 보니까 어느 정도 내용 쪽으로 충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한번 말씀하세요.

○ △△△ 의원

아까 제가 뒤에서 말씀을 다 듣고 있었는데, 우리 심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이런 과정들이 있으셔야 조금의 외유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더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긴장감을 갖고 가지 않겠나 하는 취지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주신 내용들과 추가적인 내용들에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자는 부분이 있는데 첫째가 그 장소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다 관광 명소 아니냐, 맞습니다.

관광 명소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호주를 출장으로 몇 번 다녀와 봤고, 또 호주를 배낭여행으로도 다녀와 봤고, 또 이번에 공무국외 연수라는 과정으로 가는데 사실은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가면서 8대 때 가면서 첼시마켓을 중점적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공장 지대를 이제 쇼핑몰처럼 변화시켜놓은 것

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뉴욕의 첼시마켓을 그냥 뉴욕 관광을 간다는 마인드로 간다면 첼시마켓에 가서 이런 것이 좋은 게 있었구나! 단순히 유흥의 목적성을 놓고 본다면 그런데, 대목적이 첼시 마켓을 갔을 때는 진짜 이런 허름한 공장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꾸밀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국외 출장이라는 마인드로 우리 의원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자리가 될 각오로 가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받으신 내용들 중에 보면 일자별로 사실 제가 봐서는 이거 너무 뽁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저희 의원들이 가면서 주제별로 다 하나씩 임무를 부여를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너무 뽁뽁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갖고 가는 게 출장 계획서에 보면 의원별로 항목이 다 나뉘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공부를 여기서 더 해가지고 한 90% 이상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실제 10%는 현장에 직접 가봤더니 90% 공부한 게 얼마나 다르냐, 또 다르다면 어떻게 우리가 갖고 와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저는 도시재생과 관련해가지고 그걸 보고 와가지고 저희 불광 2동 도시 재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50년 넘게 도시재생을 했는데, 저희는 5년 만에 도시 재생을 하겠다는 것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금 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대 때 공무국외 연수를 한번 갔다 와가지고 아! 이게 주민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구나! 해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국토부하고 일부 해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광요소가 아니라 그 관광지를 가는 본인 마인드, 결국 마인드는 본인 의원들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심의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실 때에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냐리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가기 전까지 90%까지 채울 수 있도록 최대한 경비 내에서 최대한 일정을 해서 의원별로 파트를 나누어서 세분 내지 네분 정도가 주제를 다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해서 하고 옆에서 보았을 때 다른 부가적인 의견을 보충해주고 그러면 보고서 작성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의원이 전체 일정에 대한 보고서를 쓸수 없습니다.

내부에 의원들끼리 논의할 부분이지만 3, 4인씩 이렇게 보면 출장업무에 개인별 업무 집중내용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해서 볼테니까 일정에 상세내역들을 보강해서 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장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 △△△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그냥 은평구의회가 그럴 것이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의회는 갔다오고 보고서를 같이 갔던 직원들한테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은평구의회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안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보고 느낀 것들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꼭 자신의 언어로 글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위원장

답변하실 분

○ △△△ 의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장

저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은 기후변화나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보면 출산과 교육입니다.

나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번에 출장 관계는 그부분이 아쉽게도 없어요. 그래서 일정을 변경해서 한번 가실 수 있으면 가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공무국외 출장을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말씀을 끝내고 또 할 것이 있습니다.

심사의견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심사의견서를 보면 6가지 분야가 있는데, 각각 적정, 부적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가, 부를 체크해 주세요.

○ △△△ 의원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갈무리를 하셔서 심의를 마치면서 저는 수정안보다 원안대로 가되 아까전에 △△△의원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계획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행정 분야라고 하면 도시를 여행하다가 혹은 시찰하다가 도로라던지 신호등이라던지 자전거 거치시설이나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은평에 적합한 교통 비교시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청소행정 분야는 길거리에 쓰레기통 하나 재활용 수거 장비하나가 은평구에 필요한 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원안대로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계획에 매몰되지 않고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자기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열의원님도 계시지만 의원님이 가시면 자전거와 관련된 활성화 분야가 더 많이 보일 것이고 △△△의원님이 가시면 체육시설 혹은 체육관련 기반 시설을 더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별 보고서가 특색있고 전문가다운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보고서로 작성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성은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의원

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계획을 볼 때 다 각기 다른 눈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지쪽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계획안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가는데 사회보장 제도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식방문을 통해서 꼭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생활상을 봄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보다는 현지에 가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제도를 보고 전 세계적인 사회 이슈가 저출산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나라도 저출산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는 4대 보험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게 고갈되면 납부자는 줄고 그러다 보니 고령화는 가속되다 보니 의료비가 많이 들어 가는 그런 시대가 눈앞에 오고 있는데 호주나 뉴질랜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호주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같은 경우 장애인들에 대해 국가에서 장애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배울만 하지요.

사회복지의 큰 틀은 국가에서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환경적인 부분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지인데 유니버설 디자인도 그렇고 그런 것도 공식방문이 아니어도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우려나 걱정 안하셔도 저희 분야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보고와서 보고서 작성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말씀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

○ △△△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혹시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싶어 한마디 더합니다.

계획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일정이 빡빡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만 이 계획서에 목적의식이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불어 이게 교육용 아닙니까.

뭐가 참신한 제도나 이런 것을 더 이상 이 안에서만 연구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셔서 새로운 행차를 얻어보시라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고 사실 가시는 분들께서 각자의 통찰을 얻어오시면 좋겠지만 사실 가시는 분들 중에 한 분만이라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어오시면 공무 출장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좀 너무 계획에 정말 매몰되지 마시고 자유롭게 가서서 많은 것을 좀 보고 오시되, 확실하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더 의견 제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심사의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 △△△ 위원장

우리 심의위원들만 남았는데 우리 심의위원들끼리 대한 가부 결정하기 전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님.

○ △△△ 위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가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저희한테 사전 검토했던 자료가 좀 부실했던 건 모두 다 인정하는 바고 저도 공공기관에서 한 15년 동안 행정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다양한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자료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용적인 측면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제가 가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결정을 한번 하고 싶어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또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 싶어서 이렇게 토의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 △△△ 위원장

사실 국외 출장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구의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가, 또 필요하지 않은 건가에 대해서 참 의문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구의원들이 안목을 좀 넓히고 또 자존심을 좀 갖게끔, 자긍심도 갖고 그런 부분을 고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래서 행안부에서 해외공무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번 나가지도 못했지만 그건 변명인 거고, 이번에 이제 몇 년 만에 해외공무 출장을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관계나 이런 걸 많이 따져요, 다른 데서는.

근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이 가격에 호주나 뉴질랜드 갔다 올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저렴하게 만들어 졌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심사기준에 보면 이제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 방문 기관의 타당성, 이런 게 다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건 이게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더 자세하게, 더 좋게

요구를 하더라도 사실상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갔다 온 결과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갔다 온 결과는 다른 게 아니고 보고서겠죠.

보고서를 우리가 적정으로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걸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

보고서가 부실하다 하면은 바쁜 심의 위원들이 다시 보고서를 쓰라 그러든가, 이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는데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다 감안 하시고 우리 은평구에서만 특별히 해외 출장 가는 건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 다 이렇게 가는데 가서 문제 없이 자기네 소신대로 또 자기네들이 느낀 대로 배워가지고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월 해라, 월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너무나 또 디테일하게 또 요구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분 얘기하실 분 있습니까?

○ △△△ 위원

아까 위원님들 많이 계셔서 이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공무국외 출장에 대해서.

근데 그전에 사실 공무국외 출장의 본질이 교육이라는 점은 좀 구민들도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올 지, 못 배워올 지 모르니까 배울 기회를 주지 않겠다, 라는 것은 사실 조금 어불성설이고 그러니까 원가를 배워오겠다 하면은 보내야죠.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는 기간 내에 과도하지 않은 일정이라면 당연히 보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예산이 적정한가 정도만 심사를 하면 저는 족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국이 조금 관광 아니냐,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랑 완전히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는 없죠.

완전히 베낄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제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냥 가서 하나의 통찰을 얻어와서 어떻게든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게 노력한다 라는 것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따라서 경비만을 저는 보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경비가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타이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필요성 부분에서는 원론적으로 당연히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경비 부분만 이제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하면은 기본 심사로 저는 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이걸로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추가 의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한테.

△△△위원님께서서는 충실한 보고서가 제작되고 많은 이들이 보고서가 공유되길 바라는 추가 의견을 내셨고, △△△위원님께서서는 추후 심사위원 회의록 및 심사자료 공개 시 회의에 추가 제출한 일자별 안내자료를 첨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놨어요.

이것은 우리 간사님께서 잘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대체로 적합합니다, 하고 △△△위원님이 했고, △△△위원님은 단순 계획서를 넘어 각자의 관심 행정 분야에 대한 비교시찰과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보고서를 잘 작성하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심사위원들이 바란대로 보고서가 잘 작성돼 가지고 제출될 거에

요.

심려는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이걸로 발표를 하셔야지.

○ △△△ 감사

위원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 △△△ 위원장

내가 하는 거예요.

가부로 따질 것 없이 만장일치입니다.

가로 만장일치가 되어서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이렇게 오늘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만장일치로 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기쁩니다.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산회)